전국 장애인체전 21일 팡파르

25일까지 여수 등 전남 5개시 29개 경기장서 펼쳐져

전남도, 신종플루 대응 시스템 가동 '안전체전' 총력

'화합과 희망의 한마당 축제'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21일부터 5일간 목포·여수 등 전남 5개 지역에서 열린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전남도·전남도교육청·전남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6천350명(선수 4천692명, 임원 1천65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규모로 펼쳐진다. 또한 이번 대회는 양궁·육상·배드민턴·보이차 등 24개 종목(정식 22개·시범 1개·전시 1개)에 걸쳐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 등 5개시 29개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에 광주는 20개 종목에 선수단 327명(선수 311명·임원 16명), 개최지 전남은 24개 종목에 선수단 462명(선수 327명·임원 135명)이 각각 참가한다.

개회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 여수진남경기장에서 열리며, 사전행사·식전행사·공식행사·화합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사전행사에서는 여수엑스포·F1·우주선·남도의 바다와 자연·장애인체육활동 등을 담은 영상과 장애인 어려움 이해하기 영상 등을 방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하나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성화는 여수 향일암에서 17일 채화해 대회가 개최되는 5개시 260km의 봉송길을 돌아 개회식 성화대에 점화된다.

전남은 이번 체전을 근검·절약체전, 체험체전, 배려체전, 친환경 녹색체전이 되도록 주력했다. 먼저 절약체전을 위해 지난해 전국체전 경기장과 경기용품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한 타시·도 선수들에게 추억을 남기기 위해 승마체험·문화관광투어·범선바다체험·영산강황토돛배체험·순천만생태탐방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선수단의 편의를 위해 숙소 및 음식점 등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1대1 자원봉사를 위해 2천252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교육하여 각 지역과 경기장에 배치, 장애인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대회 기간 중 신종플루 예방대책으로 체전 개최 5개 시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참가선수단 숙소 출입시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기장 및 음식점 등에 손씻기 세정제를 비치하여 철저한 예방운동과 보건소·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첼시의 람파드(왼쪽)와 에시앙이 16일(한국시간) 런던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포르투의 로드리게즈(왼쪽에서 두번째)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5연속 '꿈의 무대' 밟았다

챔스리그 베식타스戰 후반 교체 출장…맨유 1-0 승

호날두 2골 맹활약 … R 마드리드, 취리히 5-2 완파

'산소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 베식타스(터키)와 경기에서 교체 출장해 다섯 시즌 연속 꿈의 무대를 밟았다. 맨유는 베식타스에 1-0으로 승리해 기분 좋게 출발했다.

박지성은 16일 오전(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의 이뇨뉴 경기장에서 열린 베식타스와 32강 조별리그(B조) 첫 경기에서 후반 38분 발렌시아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로써 박지성은 2005년 맨유 입단 후 다섯 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출전했다. 교체 투입되자마자 박지성은 페널티지역 정면으로 달려가던 마이클 오언에게 날카로운 스루패스를 만들어냈지만, 공이 오언의 발을 지나치면서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박지성은 이후 특별한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다.

맨유는 폴 스콜스의 헤딩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맨유는 이날 승리로 챔피언스리그 B조에서 16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한편 '특급 윙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스위스 취리히 레치그룬트에서 열린 FC 취리히(스위스)와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전반 27분 선제골을 넣고 나서 후반 44분 한 골을 더 뽑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의 두 골에 최전방 공격수 라울과 곤살로 이과인 구티가 번갈아가며 한 골씩 보태 취리히를 5-2로 완파했다. 시즌을 앞두고 '제2기 갈라티코' 정책을 편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호날두와 카카, 라울,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 등 호화 멤버를 총출동시켜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향한 첫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 /연합뉴스

한·중·일 '빙판 삼국지'

아시아 첫 통합 스포츠리그

아이스하키리그 19일 개막

아시아 최초의 통합 스포츠리그인 2009-2010 시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가 오는 19일 개막한다.

7회째를 맞는 이번 시즌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7개 팀이 참가하며 내년 2월 7일까지 팀당 36경기의 정규 리그를 치른 뒤 3월 6일부터 상위 4팀이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을 거쳐 최강을 가린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 한 달 동안은 경기가 없다.

한국에서는 안양 한라와 하이원이 참가하고 일본에서는 오지 이글스와 일본제지 크레인스, 닛코 아이스벅스,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나온다. 중국에서는 차이나 드래곤이 참가한다.

참가팀 수는 지난 시즌과 똑같지만 면면이 조금 달라졌다.

지난 시즌까지 참가했던 일본 최강팀 세이부 프린스 래비츠는 모기업 지원이 끊겨 해체됐고, 대신 신생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새로 합류했다.

중국의 차이나 샤크스 역시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산호세 샤크스가 지원을 포기하자 중국 협회가 직접 지원하기로 하고 차이나 드래곤으로 이름을 바꿨다. /연합뉴스

광주 텔룩스 볼링팀 올 시즌 2관왕 영예

회장기볼링 금 3, 동 2 종합우승

광주 텔룩스 볼링팀이 올시즌 전국대회 2관왕에 올랐다.

텔룩스팀은 제29회 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에서 손연희의 맹활약에 힘입어 금메달 3개·동메달 2개를 획득하면서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텔룩스팀은 지난 7월 실업연맹회장기 우승에 이어 두번째 전국 정상등극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대표 손연희는 16일 대전월드컵볼링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마스터스 결승에서 2천160점을 기록, 권은실(부평군청·2천137점)·정다운(곡성군청·2천033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텔룩스는 이번 대회에서 3인조·5인조 우승에 이어 손연희의 우승까지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손연희가 개인전과 개인전 종합에서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텔룩스팀은 내달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금빛 스트라이크를 기대하게 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공고 김승현 銀

씨름 남고부 소장급

김승현(광주공고)이 제10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승현은 16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소장급 결승에서 라상엽(서울우신고)을 맞아 선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0-1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역사급 8강전에선 한민우(광주공고)가 김대일(충남태안고)를 1-0으로 꺾고 4강에 올랐으나 결승 진출이 좌절된 채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서승원기자 swseo@

'세계 최강' 한국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 출격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17일부터 나흘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지는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 나선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프로젝트'의 첫 걸음을 내딛는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 13일 현지에 도착해 대회가 치러질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빙질 적응에 매진하고 있다.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녀 3관왕에 빛나는 안현수(성남시청)와 진선유(단국대)가 지난 4월 대표선발전에서 부상 후유증 때문에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지만 대표팀의 전력은 여전히 튼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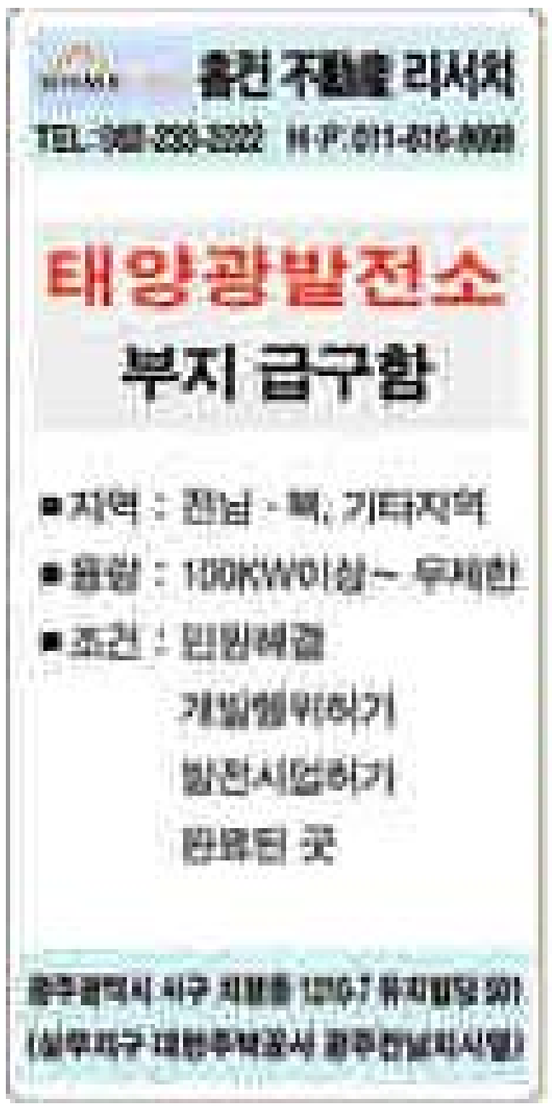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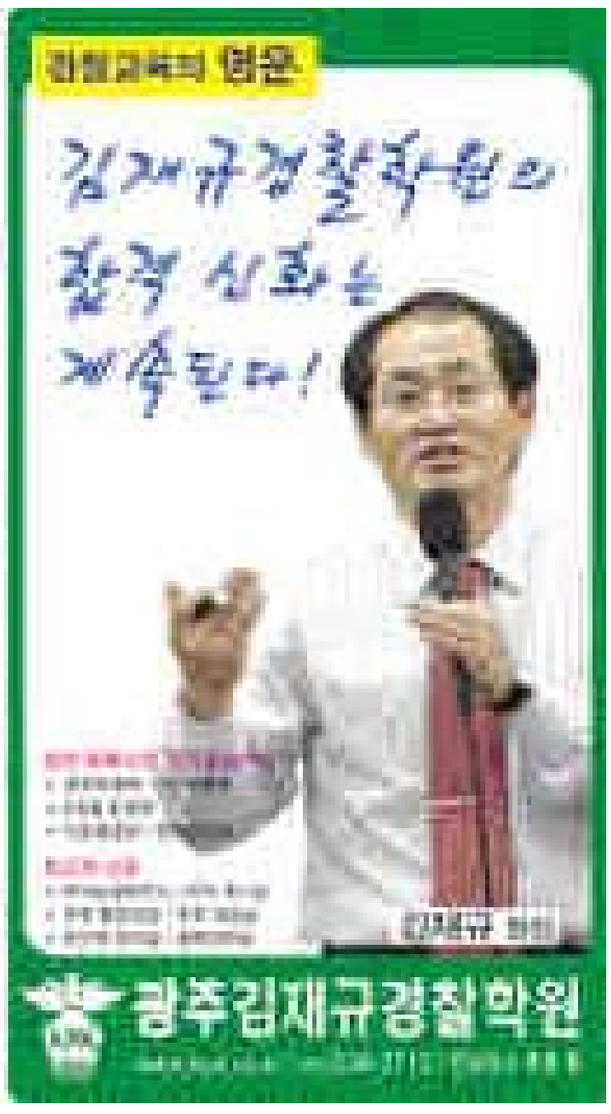
남자 대표팀에는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이호석(고양시청)과 '차세대 에이스' 성시백(서울일반)을 비롯해 '백전노장' 이승재(전북도청)와 이정수, 김성일(이상 단국대), 관윤기(연세대) 6명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스포츠 중계

17일(목)

▲KRA컵 탁구 슈퍼리그 (12 : 50·KBSN SPORTS)

▲신세계 KLPGA 선수권 2R (13 : 00·MBCESPN)

▲SBS 코리안투어 메리츠 솔모로 오픈 1R (13 : 00·SBS골프)

▲프로야구 〈한화 : 두산〉(18 : 15·X-ports), 〈히어로즈 : 롯데〉(18 : 15·SBS스포츠·MBCESPN), 〈한화 : 두산〉(18 : 20·KBSN SPORTS)